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이슈리뷰

- **북경+30 아태지역 장관회의 보고서:**
성평등 달성을 위한 30년의 여정과 향후 과제
박윤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유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북경+30 아태지역 장관회의 보고서: 성평등 달성을 위한 30년의 여정과 향후 과제

박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2024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북경+30 아태지역 장관회의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진전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국 정부 대표, 시민단체, 유엔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는 총 3일간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함께 아태지역 북경행동강령 이행 가속화를 위한 우선순위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이행 성과를 발표하고, NGO 및 시민단체가 성평등 이슈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참여와 리

더십 확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대응,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변혁적 접근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패널토론이 열렸다. 마지막 날에는 부대행사와 특별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회의 결과 문서 및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의 일환으로 본원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부대행사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적 사회 규범 전환’을 주제로 성평등 증진을 위한 혁신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본 행사에서는 차별적 사회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개입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고는 북경+30 아태지역 장관회의 및 본원이 주최한 부대행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고, 북경행동강령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국내외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장관회의¹⁾

회의 첫날 오전에 열린 개회식은 북경행동강령의 중요성과 30년간의 여정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개회사는 와라웃 쉴빠야차 태국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장관, 아르미다 알리사바나 UNESCAP 사무총장, 시마 바후스 UN Women 총재, 샤하르자드 아흐마디 아프가니스탄 정의와평등추진기구 국장, 평린첸 중국 충칭 량장신구 KnowDeaf 사회복지서비스센터 대표, 아이잔 자나예바 키르기스스탄 여성단체 ALGA 연구원 순으로 발표되었다. 각 연사는 성평등을 향한 세계적 노력과 각국의 성과를 환기하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 교육, 건강, 정치적 대표성과 같은 주요 의제에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와 젠더 기반 폭력 해결 등 여러 분야에서 정체 또는 후퇴 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또한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인 위기가 여성과 여아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날 연사들은 아태지역 성평등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으며, 특히 시마 바후스 UN Women 총재는 북경행동강령이 국제사회의 성평등 노력에 미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아태지역이 글로벌 성평등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각국 대표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성과와 도전과제를 짧게 소개하며, 성평등의 가속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발언들은 회의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며 각국이 공유할 공동의 목표를 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대표는 공식 발언을 통해 한국이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정책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여성 고용 확대와 유연 근무 지원 등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 수당·휴직 확대 및 늘봄학교를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국가별 사례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맥락에서의 독창적 접근법을 제시하며, 회의 전체에 실질적인 논의의 방향성을 제공했다.

〈아태지역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도전과제〉

회의 첫날, 각국 대표들은 북경행동강령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문해율 증가, 일부 국가에서의 여성 정치 참여율 상승,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주요 성과로 언급되었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이 성평등 달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논의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생계와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여성 경제 역량 강화와 사회 보호〉

둘째 날에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유연근무제 도입과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며, 무급

1) 본 섹션은 장관회의 주요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장관회의 공식 세션 제목 및 주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노력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태국은 소액 대출 프로그램과 여성 기업가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확산 가능한 모범 사례로 공유되었다.

돌봄 경제를 공식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 특히 육아 지원 프로그램과 유급 휴가 정책이 여성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사이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패널 토론에서는 특히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사회 보호와 경제 참여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도 사회적 보호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장기적 경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여성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과 예방〉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유해한 젠더 규범을 변화시키고, 남성과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패널에서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글로벌 모범 사례와 이를 아태지역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호주 정부의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이 사례로 소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지역사회의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필리핀의 사례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유해한 성별 규범을 해체하는 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며, 지역사회의 참여가 성평등 실현의 핵심 요소임을 밝혔다.

〈변혁적 행동을 통한 성평등 가속화〉

마지막 날에는 아태지역에서 성평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변혁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괄적 디지털 정책과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촌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모델이 소개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인지적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 경제적 역량 강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민간, 시민사회, 풀뿌리 조직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여성이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리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 본원 공동개최 부대행사: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적 사회 규범 전환

본원은 OECD 개발센터, 몽골 세계여성상공인협회(IWFCI)와 공동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적 사회 규범 전환’을 주제로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유엔본부 내 컨퍼런스 룸에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부대행사의 세부 프로그램과 각 패널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시: 2024. 11. 19.(화), 12:30~13:45, 유엔본부 Conference Room G

□ 제목: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적 사회 규범 전환

(Transforming discriminatory social norms to empower women: Insights from Asian countries for accelerated action towards Beijing+30)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OECD 개발센터, 몽골 세계여성상공인협회(IWFCI)

□ 프로그램

일시	구분
12:30-12:45	개회사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란아자브 몽흐투식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 라그하이두르 엘린 아르나도티르 (OECD 개발센터 국장(영상))
12:45-13:05	발표 • 발표 1. 성별 고정관념 개선 광고·상업영상·영화 발제 영상 - 바이갈리 오치후 (몽골 세계여성상공인협회장) • 발표 2. SIGI 2024 동남아시아지역보고서 결과 공유 - 박해신 (OECD 개발센터 젠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발표 3.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과제 -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13:05-13:30	토론 • 초그트바타르 만갈수렌 (몽골 가족노동사회보장부 대외협력국 국장) • 엘리자베스 실바 (아시아재단 여성 역량 강화 및 성평등팀 부팀장) • 비비 레스투비아니 (국제여성인권단체 IWRAP-FIP 프로그램 담당관)
13:30-13:40	종합토론 및 Q&A
09:25-09:30	폐회사 - 투무르 아말사나 (주태국 몽골대사)

김종숙 본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북경행동강령 채택 30주년을 축하하며, 1995년 이후 한국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보육 지원, 그리고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의 성과를 언급하는 동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성차별적 사회적 규범과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아태지역 국가들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며 평등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몽골 외교부의 란 아자브 몽흐투식 국장은 몽골이 교육과 정치 분야에서의 성평등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문화적·사회적 규범이 여성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가사노동, 조혼, 고용차별, 임금 격차, 젠더 기반 폭력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언급하며, 본 행사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OECD 개발센터의 라그하이두르 엘린 아르나도티르 국장은 OECD가 사회제도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를 통해 지난 15년간 성평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성차별적 법률과 관점의 증가가 여성의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는 각 국가 및 기관을 대표한 발표자들이 구체적인 경험과 도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바이갈리 오치후 몽골 세계여성상공인협회장의 소개로 2020년 동 협회와 몽골예술위원회가 제작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해당 영상은 UN Women의 'Generation Equality'와 연계하여 성별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성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박혜신 OECD 개발센터 성평등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OECD의 사회제도젠더지수(SIGI)를 소개하며 시작되었다. 동 지수는 180여 개국의 법률, 사회적 규범, 관행 등을 분석해 여성과 여아가 생애 전반에서 마주하는 성차별 문제를 추적하고 있다. 2024년도에 발간된 동남아시아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제한하는 사회적 규범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이 높으나, 지난 5년간 여성 노동권 강화, 성희

롱 방지, 조혼 방지 등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표는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이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과 남아의 적극적 참여와 돌봄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지소 본원 국제협력센터장은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지난 30년간 한국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이룬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더불어 'M자형 곡선'에서 30대 여성 고용률 감소 폭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강조했다. 또한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20%에 이르렀으며,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출산휴가 확대가 이루어진 것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나아가 가족 부양 책임이 남성에게만 있다고 믿는 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과 성평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 시간은 박혜신 OECD 개발센터 성평등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 초그트바타르 만갈수렌 몽골 가족노동사회보장부 대외협력국장은 몽골의 성평등 및 가족 정책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몽골은 성평등을 위한 10년 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 개정된 노동법을 통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규정을 도입했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제고를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성평등 정책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엘리자베스 실바 아시아재단 여성 역량 강화 및 성평등팀 부팀장은 여성의 경제적 기회 확대와 돌봄 역할 관련 전통적 사회 규범을 전환하기 위한 과제 및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여아 교육 지원,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여성 기업가의 창업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접근을 강조하며, 직종 분리, 여성 리더십에 대한 편견, 돌봄 역할의 성별 고정관념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해 미디어를 통한 긍정적 여성 롤모델 제시,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법과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비비 레스투비아니 국제여성인권단체 IWRAW-AP 프로그램 담당관은 시민단체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여성 폭력 및 경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성폭력 방지법 제정을 사례로 들며, 데이터 중심의 접근법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해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법안 제정 이후에도 법 집행과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단체 주도로 실시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투무르 아말사나 주태국 몽골대사는 북경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하는 부대행사의 개최를 축하하며, 이번 행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증진과 차별적 사회 규범의 해체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이 성평등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임을 재차 강조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4. 나가며²⁾

이번 북경+30 아태지역 장관회의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재조명하며 남아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돌봄 경제(care economy)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돌봄 노동을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ESCAP, 2024: xix). 또한 무급 돌봄 노동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유급 돌봄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성평등 실현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었다. 나아가 돌봄 노동이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투자 확대와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노동시장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과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의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성과 여아가 불균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지적 기후 정책과 기후 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ESCAP, 2024: xix). 또한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ESCAP, 2024: xix). 디지털 기술과 교육 혁신은

2) 북경+30 아태지역 장관회의는 ESCAP(2024)를, 한국 정책예의 시사점은 윤지소 외(202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젠더 기반 폭력 예방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성별 분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으며, 데이터를 통해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되었다(ESCAP, 2024: xix).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성평등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돌봄 노동 부담 완화, 디지털 경제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그리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 간의 돌봄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한 구조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사 정책을 마련하고,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

히 녹색 전환 및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정치·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리더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대응에 있어서는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젠더폭력 방지 조치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 논의와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접목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회의와 연계하여 본원이 개최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적 사회 규범 전환’ 부대행사는 성평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과 혁신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 본 행사는 아태지역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성차별적 사회 규범 해체를 위한 각국의 사례와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논의와 연계하여 성평등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성평등 발전 모델을 공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학계, 시민사회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선도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북경+30 아태지역 장관회의 본회의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적 사회 규범 전환' 부대행사
	

• 참고문헌 •

ESCAP(2024). *Charting New Paths for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Asia-Pacific Regional Report on Beijing+30 Review*. United Nations: Bangkok.

윤지소·이미정·장윤선·정성미·조혜승·김유민·송지선(2024). 북경행동강령 30주년 이행평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